

성적증명서

대학: 대학	입학일자: 1990. 3.
학과(부): 학과	졸업일자: *****
전공: *****	학위등록번호: *****
성명: 김민준	학점 성적: 1.0 A
성적구분: 1.0 A	취득학점: 19.0

행복의 잣대가 되어버린 성적

1997년도 1학기		3.0	B+
1	이화여자대학교	3.0	B+
2	정치학입론	3.0	B+
2	심리학개론	3.0	B+
2	현대사회와과학	3.0	B+
5	경제개론	3.0	B+
5	중국경제론	3.0	B+
7	서양미술사	21.0	
신학기점	21.0	취득학점: 21.0	
평점계	72.00	평점평균: 3.429	

한 가로이 강가에 낚시대를 드리우며 상념에 빠지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1학년의 한 학생. 지금 그 친구는 자신이 꿈꾸던 대학의 강가가 아닌 도서관에서, 낚시대가 아닌 펜을 들고 학점을 낚고 있다. 물론 한가로와 보이지는 않는다.

대학에 오면 성적 걱정없이 미팅도 하고 밤세워 술을 마시며 인생과 철학을 이야기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낭만을 이야기하기엔 세상이 버겁게 느껴진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 학부제로 바뀌어 버린 직후부터 대학에서의 신입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아닌, 이제선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쟁자들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가 통하지 않는 요즘 대학에서 신세대 대학생들 85%(그렇다 47.5%, 보통 37.5%)가 긍정적으로 학점이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9.5%(그렇다 11.5%, 보통 48%)가 학점이 대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성적은 행복순'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점의 중요성이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커닝, 대리출석, 리포트, 베끼기에 대해서도 점점 관대해지고 있다.

먼저 조사대상의 62%가 한번 이상은 커닝(2-3번 38.7% 4-5번 10.5% 6번이상 4%, 10번이상 13.7%, 항상 8.1%)을 해보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학점의 중요성이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커닝, 대리출석, 리포트, 베끼기에 대해서도 점점 관대해지고 있다

서 학점(24.7%), 공부를 안해서(14.5%), 다들 하나(14.5%), 심리적 불안(6%)이라고 응답했지만 커닝자체가 일단 학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점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듯 싶다. 반면 커닝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긍정적 14.5%, 잘 모르겠다 27%)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58.5%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일부 학생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름을 나타냈다.

또한 커닝의 방법도 여러가지여서 친구와 토론, 대법하게 책보기, 슈퍼필통사용, 손바닥이나 발치기, 훔쳐보기등을 사용한다고 대답했으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커닝페이퍼를 이용하거나 책상위에 써놓는 방법이었다.

대리출석 역시 65.5%가 경험했으며 리포트베끼기는 45.5%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대리출석이나 리포트베끼기의 부정적 견해는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학기초 수강신청을 하기위해 전산실에 장사진을 이루는 학생들은 심한 몸살을 앓는다. 전산실의 태부족도 문제라니 학생들의 잦은 수강신청변경으로 더욱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소문에 의하면 학점 잘 주는 교수들의 강좌는 수강신청 첫날부터 상황중요라 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59%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가장 우선하여 수강신청을 한다고 밝힌 반면 학점이라고 응답한 학생수는 13.5%에 지나지 않았다. 질문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예상외의 답변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에 수강신청을 했다가 학점 취득의 부담으로 커닝이나 대리

전 학점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알차게 살면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는거, 학생이라면 당연한거 아니에요?

이형~ 난 이번에도 학교야... 취직이고 뭐고 이제 다 포기했어... 호호호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안해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커닝 노하우만도 수십가지거든요. 물론, 조금 찜찜하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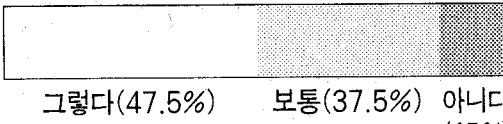
출석, 리포트 베끼기를 통해 학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학점에 신경을 쓰는 학생들 눈에는 성적표의 D+가 특히 눈에 거슬린다. 어쨌든 C도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 모든 학점이 A이상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인지 요즘 D+재수강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A+ 고려대는 B+이상을 재수강 범위로 정해 고학점 취득기회를 적극보장하고 있다. 재수강 D+제한에 대한 전체응답에서 67.5%가 불만을 표출해 앞으로 재수강 제한학점 조정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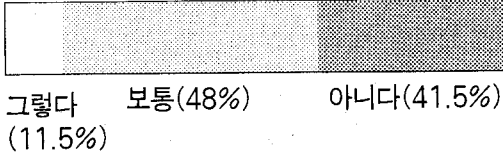
공부보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낭만과 이상을 더 이야기 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학사 경고자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그 중가도 해마다 늘고 있다. 요즘 불어닥친 대학평가 때문인지 전례없이 늘었다. 학사경고자들은 학점이 대학생활에 전부가 아니라며 성적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변하지만 조사대상자의 64%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며 정신차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학사경고제도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승오 편집위원>

□ 학점·학업문화 관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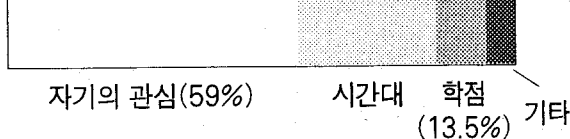
1. 학점이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점이 대학 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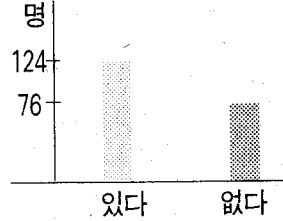


3. 수강신청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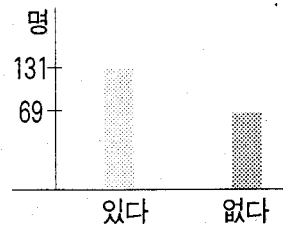


조사기간: 9월25일~26일
조사대상: 서울·수원캠퍼스 각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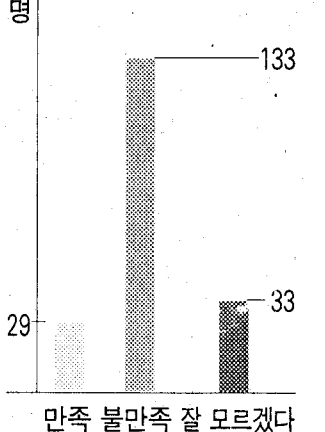
4-1. 커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4-2. 대리출석을 시켜본 경험이 있습니까?



5. 서울대는 A+, 고려대는 B+까지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학교 재수강 범위인 D+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세계로 미래로-

제조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산업기계
동양토발

식품

동양제과
오리온프리도레이

공익

서남재단

금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중앙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할부금융
동양창업투자
에셋크리야투자자문
동양선물
동양파인스

무역·건설·유통

동양글로벌
동양시멘트/건설
동양에온
동양마트

정보통신

동양Systemhouse
투니버스

레저·스포츠

동양H&R
동양레저
동양오리온스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국가기간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동양그룹

http://www.tongyang.co.kr